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n Border in the Subject Headings of Major Countries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I. 서론	III.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분석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한국의 국경관련 목록 레코드 현황
2. 연구대상 및 방법	2.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표기 현황
3. 선행연구	3.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특성 비교 분석
II.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현황 및 구조	IV. 결론
1.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현황	
2.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 구조	

초 록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즉, 전거레코드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의 실태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국경관련 문헌이 소장되어 서지 레코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국경관련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스페인의 경우 ‘황해’, ‘두만강’, ‘백두산’에 관한 서지 레코드조차도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둘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독일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명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셋째, ‘동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황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황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넷째,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의 경우 대부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장백산’과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백산’을 ‘백두산’의 이형 접근점으로 표기하고 있다.

키워드: 주제명표목표, 전거레코드, 국가도서관, 한국국경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subject heading related to Korean border shown in the subject headings of 7 countries: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Spain, Russia, China, and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Korean border-related records in most other national libraries are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except for some countries like United States. Amnokgang and Dumangang-related records did not search at all in the France. Yellow Sea, Dumangang, and Baekdusan-related records did not search at all in the Spain. Second, even Dokdo we have effective control, the geographical name ‘Korea’ is not marked with catalog records except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e Germany is displayed with the geographical name of ‘Korea’ and ‘Japan’. Third, the East Sea (Donghae) already is marked with ‘Sea of Japan’ in most of the national library catalogs, and Yellow Sea (Huanghai) is marked with ‘Yellow Sea’. Fourth, Amnokgang and Dumangang is marked with Chinese pronunciation in most in most of the national library. Fifth, Baekdusan is marked with Korean pronunciation in most countries. However the United States showed in ‘Baekdu Mountain’ and ‘Changbai Mountain’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the Germany, ‘Changbai Mountain’ are marked with variant access point of ‘Baekdusan’.

Keywords: Subject headings, Authority file, National library, Korean border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H00021)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접수일: 2013년 5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3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13년 6월 27일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온갖 정보에 마음대로 접속할 수 있지만, 무질서하고 범람하는 정보가운데서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정보는 자기 나라의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가운데 한국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정보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표방한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지만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외국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특히 국경관련 주제명(地名)과 같이 특정성이 있는 주제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우리의 역사나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 관련 자료가 각국의 국가도서관에 많이 소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관련 주제명이 이들 도서관목록에 올바르게 표기되고 조직될 수 있도록 주제명표목표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 관련 주제명을 검색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경과 관련된 용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독도', '두만강', '압록강' 등의 용어가 외국인들에게 '다케시마', '토문강', '알루리버' 등의 용어로 일 반화될 수는 없다. 각국의 주제명표목표에서 이들 주제명이 한국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표기되고 도서관의 목록에서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의 표기현황 및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들 주요 국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주제명을 조사하여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시도한 것은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여기서 주요 국가는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세계 주요 언어권의 대표적인 국가이면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개국(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독도, 동해, 황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을 비교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 문헌이나 해당 국가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명표목표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한다. 이때 일부 국가의 언어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둘째, 주요 국가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국경관련 서지 및 전거레코드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와 전거레코드에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의 표기 실태를 조사한다. 각 주제명에 대해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등을 중심으로 표기현황을 도표로 나타낸다. 일부 국가의 경우 주제명표목표나 전거레코드에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국가도서관의 국경관련 목록레코드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표기내용을 조사한다.

넷째, 각 국가의 주제명 표기 특성과 현행 한글 로마자표기와의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며, 지리 한정어의 표기특성을 함께 분석한다.

3. 선행연구

일반적인 주제명표목표나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고 주제명표목표를 통해 국경 및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김영귀는 접근점으로서의 주제명표목을 고찰한 후, LCSH 제18판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을 분석하였으며,¹⁾ 윤정옥은 LCSH 제20판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관련 주제표목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주제 분포와 논쟁이 되고 있는 용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²⁾ Kim은 LCSH 제12판을 대상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관련 주제명을 추출하였다.³⁾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각각 1995년도에 발간된 LCSH 제18판과 1997년도 발간된 제20판, 1989년도에 발간된 제12판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일부 용어만 분석하고 있어 최근의 용어들에 대한 변화추이를 알 수가 없다. 김정현과 문지현은 LCSH의 초판부터 제30판까지 한국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으며,⁴⁾ 김정현은 LCSH의 초판부터 제31판까지 한중일 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⁵⁾ 및 LCSH의 한국 국경관련 주제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⁶⁾ 문지현과 김정현은 중국과 일본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을 비교 분석하였다.⁷⁾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는 2010년 주요 국가의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

1)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2)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3) Joy Kim,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9).

4) 김정현, 문지현,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49-68.

5) 김정현,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147-169.

6) 김정현, "LCSH의 한국 국경관련 주제명의 변천고," 국회도서관보, 제47권 제11호(2010), pp.56-63.

7) 문지현, 김정현,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pp.247-267.

문지현, 김정현,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런 주제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⁸⁾ 남태우 등은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⁹⁾ 정연경은 정보 접근점으로 LC 주제명표목에 대해 분석하였다.¹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주제명표목표에 관한 연구는 주로 LCSH의 특성이나 구조 등 일반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한국 관련 주제명의 연구는 김영귀, 윤정옥, 문지현, 김정현의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연구도 대부분 LCSH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의 전반적인 주제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이 국가마다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II.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현황 및 구조

1.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현황

주제명표목표의 경우 정보센터나 주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각국의 국가도서관에서 개발하여 국가도서관의 주제명 전거파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미국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초판은 *Subject Headings Used in the Dictionary Catalogues of the Library of Congress*라는 표제로 1914년에 발간되었으며, 1975년 제8판부터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LCSH)*라는 현재의 표제가 되었다. 매년 책자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2012년에 발간된 제34판에는 총 329,000개의 주제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전거데이터의 검색시스템을 웹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¹¹⁾ LCSH는 매년 책자형태로도 발간되고 있지만, 주제명 전거파일(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에서는 새로운 주제명이 추가되

제3호(2011), pp.331-350.

문지현. “『中國分類主題詞表』와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pp.247-267.

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9) 남태우 외.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 제4호(2008), pp.291-310.

10) 정연경.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pp.51-72.

11)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34th ed.(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12), pp.vii-viii.

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다.¹²⁾ 미국의회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주제명 전거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나. 프랑스

프랑스 국립도서관 BnF의 주제명표목표(Répertoire d'autorité-matière encyclopédique et alphabétique unifié: RAMEAU)는 BnF의 OPAC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 주제명을 통해 해당 목록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¹³⁾ RAMEAU의 주제명 레코드는 일반형태, INTERMARC, UNIMARC의 3가지 형태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며, 개인명, 단체명, BnF 목록에서 주제색인을 위해 사용된 모든 주제명에 대한 전거레코드로 검색할 수 있다. RAMEAU는 온라인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매주 갱신되고 있다. 책자형태로는 비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으며, 2004년에 RAMEAU의 색인 지침과 함께 주제명이 수록된 Guide d'indexation RAMEAU 제6판이 발행되었다.

다. 독일

독일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는 단체명전거파일(Gemeinsame Körperschaftsdatei: GKD), 인명전거파일(Personennamendatei: PND), 주제명전거파일(Schlagwortnormdatei: SWD)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제명전거파일인 SWD이다. 이는 대개 독일어권에서 주제색인을 위한 전거파일로 이용되고 있다. 주제명의 표준형식(Sachbegriff)과 참조형식(Andere Namen)을 포함하여 부가적인 구성요소 즉, 전거레코드의 작성에 참고한 인용정보, 정의, 국가명코드, 적용지침 등이 포함된다. 국가명코드는 DIN 3166에 의해 부여되며, 남한(Südkorea)은 'XB-KR', 북한(Nordkorea)은 'XB-KP'로 나타난다.¹⁴⁾ 독일 국가도서관 OPAC를 통해 주제명과 함께 해당 목록레코드까지 검색할 수 있다.

라. 스페인

스페인 국가도서관 BNE의 주제명표목표(Encabezamientos de Materia de la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EMBNE)는 BNE의 홈페이지에 전거파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명, 단체명, 표제, 주제명에 대한 전거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다.¹⁵⁾ BNE 전거파일에는 목록에서 서지레코드의 표목으로 사용되는 전거레코드가 30만건 이상 수록되어 있으며, 스페인 국가도서관 OPAC를 통해 주제명과 함께 해당 목록레코드까지 검색할 수 있다. 전거목록으로부터 선택한 주제명의

12)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ttp://authorities.loc.gov/>> [cited 2013. 4. 20].
 13)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RAMEAU: Répertoire d'autorité-matière encyclopédique et alphabétique unifié* <<http://rameau.bnf.fr/utilisation/liste.htm>> [cited 2013. 4. 20].
 14) Deutsche Nationalbibliothek, *Katalog der Deutschen Nationalbibliothek*, <<https://portal.dnb.de/>> [cited 2013. 4. 20].
 15)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Manual de autoridades*, 2010, <<http://www.bne.es/>> [cited 2013. 4. 20].

저작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원하는 저작에 접근이 가능하다.¹⁶⁾

마. 러시아

러시아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는 현재 Russian State Library(모스크바)와 Russian National Library(상트페테르부르크) 2개 국가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National Subject Authority Files'의 구축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UNIMARC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RUSMARC으로 약 178만 레코드(주제명1,441,800개, 단체명 252,000개, 인명 85,000개, 통일표제 1,200개)를 구축할 예정이다.¹⁷⁾ 그런데 국가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일부 전거레코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OPAC에서 주제명을 파악할 수가 있다.¹⁸⁾ 또한 서지레코드의 검색항목 가운데 '주제명'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을 분석할 수 있다.

바. 중국

중국 국가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中國分類主題詞表,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CCT)는 중국의 대표적인 분류법인 『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과 『漢語主題詞表』(Chinese Subject Thesaurus)가 통합된 형태이며, 1994년 초판 발행이후, 2005년 CCT 제2판이 인쇄판과 전자판의 형식으로 동시에 간행되었다. 전자판에서 주제어는 한어병음, 주제어, 주석, 영문번역명, 분류기호 및 각종 참조항목으로 구성된다. 국가도서관 OPAC을 통해서는 '中文及特藏文: 瀏覽字順主題詞索引'에서 주제명과 함께 해당 목록레코드까지 검색할 수 있다.¹⁹⁾ 또한 CCT Web판을 통해서도 주제명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화면 왼쪽에는 해당 주제명이 포함된 분류체계상의 위치, 오른쪽 화면에는 주제명의 내용이 제공된다.²⁰⁾

사. 일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國立國會図書館件名標目表, National Diet Library Subject Headings, NDLSH)는 196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2012년 1월부터 웹 버전(國立國會図書館典據データ検索・提供サービス, Web NDL Authorities)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²¹⁾ Web NDL Authorities는 일반 주제명만을 수록대상으로 삼았던 Web

16)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úsqueda de autoridades*, <<http://catalogo.bne.es/uhtbin/authoritybrowse.cgi>> [cited 2013. 4. 20].

17) Olga Zhlobinskaya, *UNIMARC in Russia: RUSMARC as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MARC* (3rd UNIMARC Users Group Meeting, Lyon, France, March 31, 2010) <<http://cfu.enssib.fr/documents/publications/162314.ppt>> [cited 2013. 4. 20].

18) 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http://rsl.ru/index.php?lang=en>> [cited 2013. 4. 20].

19) 中國國家圖書館, 中文及特藏文: 瀏覽字順主題詞索引 <<http://opac.nlc.gov.cn/F?RN=647571808>> [cited 2013. 4. 20].

20) 中國分類主題詞表Web版, <<http://cct.nlc.gov.cn/login.aspx>> [cited 2013. 4. 20].

NDLSH와는 달리 인명, 단체명, 지역명, 국가명, 대양명 등 주제명의 수록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 주제명표목은 주표목, 세목,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일반주제명 형식으로 구성된 주표목은 개인명이나 단체명과 같은 고유명표목을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역명, 국가명, 대양명, 사건명, 주요 국제기관명, 주요 조약명 등은 인정하고 있다.

2.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구조

목록법에서 접근점이란 특정 저작, 표현형, 개인, 가족, 그리고 단체를 나타내는 이름, 용어, 부호 등을 말하며, 최근에 발행된 목록규칙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에서는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s)과 이형 접근점(variant access points)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전거형 접근점은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기 위한 표준화된 접근점이며, 이형 접근점은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다른 형식의 접근점이다.²²⁾ 주제명표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표 1>에서와 같이 국가마다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명표목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회도서관의 온라인 주제명 전거레코드의 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²³⁾

<표 1> 주요 국가도서관의 주제명 관련 용어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상위주제어	설명, 범위주	출처
미 국	Subject heading (USE)	Variant (UF)	See also (BT)	Scope note	Found in
프랑스	Vedette matière	Employé pour	Terme générique	[Note]	Source
독 일	Sachbegriff	Andere Namen		Erläuterungen	Quelle
스페인	Encabezamiento	Usado por	Término genérico		Fuentes
러시아	Heading		Broader term		
중 국	正式主題詞(Y)	非正式主題詞(D)	Z (최상위주제) S (최근접 상위주제)	註釋	
일 본	標目	同義語	上位語	注記	出典

LC 홈페이지를 통해 주제명 전거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유형은 주제명전거표목, 인명 전거표목, 표제전거표목, 인명/표제전거표목, 키워드전거표목 등의 선택요소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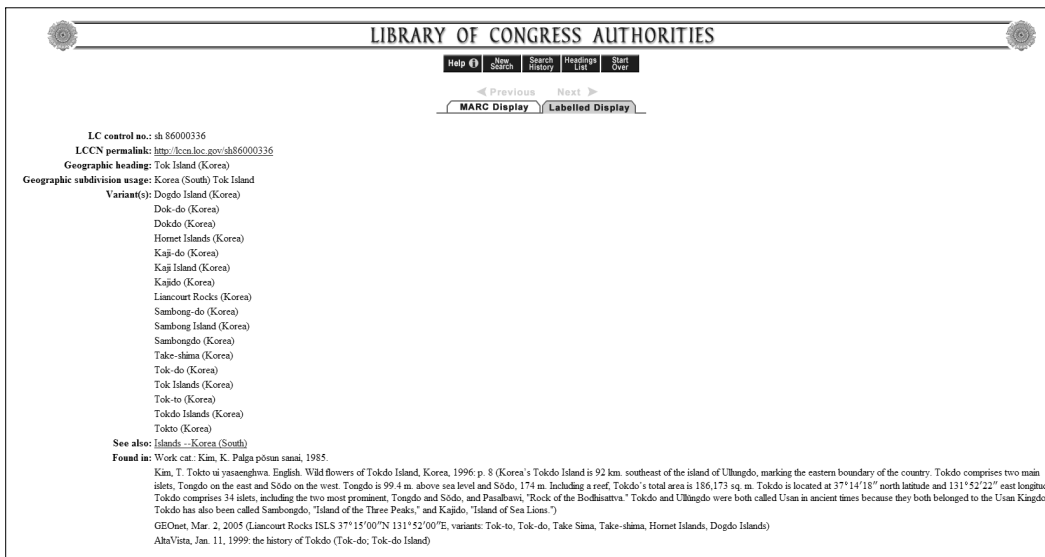
21) 國立國會圖書館, *Web NDL Authorities: 國立國會圖書館典據データ檢索·提供サービス*, <<http://id.ndl.go.jp/auth/ndla>> [cited 2013. 4. 20].

22)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RDA :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Chicago : ALA, 2010), p.0-12.

23)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ttp://authorities.loc.gov/>> [cited 2013. 4. 20].

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검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은 독도 관련 주제명의 용어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실례이다. <그림>에서 독도 관련 전거형 접근점은 'Tok Island (Korea)'이며, 이형 접근점으로 'Liancourt Rocks (Korea)'이나 'Take-shima (Korea)'를 비롯하여 모두 17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상위주제어인 'Islands--Korea (South)'와 출처에 대한 서지사항 등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제명에 대한 설명이나 범위 등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국가의 주제명 전거레코드도 거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음 장에 제시되어 있는 <표 3>~<표 8>은 <그림>과 같은 각 국가의 주제명 전거레코드를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표 1>과 같은 관계어를 사용하여 구조화하고 있지만 각국의 기본적인 전거레코드 구조는 LC 전거레코드와 거의 유사하다.



<그림> LC의 독도 관련 주제명 전거레코드 구조

Ⅲ.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분석

1. 한국의 국경관련 목록 레코드 현황

<표 2>는 주요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자료 수와 한국 관련 레코드 수, 그리고 한국 국경관련 레코드 수(서지 및 전거레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자료 수에는 일반 단행본을 비롯

하여 모든 유형의 자료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한국 관련 레코드는 해당 국가도서관의 OPAC을 통해 조사하였다. OPAC에서 주제명(주제명이 없는 경우 키워드) 가운데 'Korea'와 'Korean'이 포함된 모든 레코드를 합산하였으며, 이들 용어는 모두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검색하였다. 한국 관련 자료가 미국의 경우 94,551건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지만 전체 자료의 0.06%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 관련 자료가 빈약하다고 생각된다.²⁴⁾

한국 국경관련 레코드는 해당 국가의 언어사전과 전문용어사전을 통해 한국의 국경관련 용어에 대한 탐색어를 망라적으로 추출한 후, 이들 용어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도서관의 OPAC에서 관련 레코드를 검색하여 조사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한국 국경관련 레코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검색된 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 레코드 수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독일의 '황해'와 '압록강', 중국의 '독도', 일본의 '압록강'과 '두만강' 등과 같이 관련 문헌이 소장되어 서지 레코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국경관련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거레코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스페인의 경우 '황해', '두만강', '백두산'에 관한 서지 레코드조차도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표 2> 주요 국가도서관의 한국 국경관련 목록 레코드 현황 (2013. 4. 20 현재)

구분 국가	전체 자료 수	한국 관련 레코드 수(%)	한국 국경관련 레코드 수											
			독도		동해		황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서지	전거	서지	전거	서지	전거	서지	전거	서지	전거	서지	전거
미 국	1억5,500만 (3,500만 장서)	94,551 (0.06)	317	62	251	173	138	116	14	11	55	35	백두산 116 장백산 53	백두산 46 장백산 48
프랑스	3,100만 (1,500만 장서)	6,154 (0.02)	38	17	32	19	11	8	0	0	0	0	2	2
독 일	2,780만	6,289 (0.02)	2	1	7	1	3	0	8	0	7	1	3	1
스페인	2,800만 (1,500만 장서)	1,349 (0.005)	9	6	4	3	0	0	6	0	0	0	0	0
러시아	4,300만 (2,900만 장서)	2826 (0.007)	11	2	148	26	8	4	11	0	9	0	2	0
중 국	3,119만	12,540 (0.04)	42	0	182	2	380	69	120	12	84	8	백두산 18 장백산 258	백두산 0 장백산 57
일 본	3,803만	23,305 (0.06)	327	3	378	1	21	1	48	0	73	0	126	1

24) 'Japan'과 'Japanese'가 포함된 일본 관련 목록 레코드는 201,595건(0.13%)으로 한국 관련 레코드의 2배 이상임.

2.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표기 현황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가운데 ‘독도’, ‘동해’, ‘황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으로 한정하였으며, 앞절에서 언급한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전거레코드를 통해서 조사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국가의 언어사전과 전문용어사전을 통해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에 대한 탐색어를 망라적으로 추출한 후, 이들 용어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도서관의 전거레코드에서 관련 주제명을 탐색하였다. 탐색된 전거레코드에서 해당 주제명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 그리고 지명표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특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이때 서지레코드에는 검색되지만 전거레코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 표제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용어는 이형 접근점으로 처리하였다.

가. 독도

독도(獨島)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걸쳐있다. 동경 131°51′~131°53′, 북위 37°14′00″~37°14′45″에 위치한다.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요도(蓼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²⁵⁾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다.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꾸르호는 ‘리앙꾸르 암(Liancourt Rock)’으로 명명하였고, 1885년 영국함선 호넷호는 ‘호넷 암(Hornet Rock)’으로 명명하였다.²⁶⁾

한편 ‘독도’ 관련 주제명은 <표 3>에서와 같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대부분이 독도의 한글 발음을 번자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형 접근점에는 독도의 알파벳 번자 표기상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 역사에서 조선시대 독도의 다른 이름인 ‘가지도’(Kaji-do)와 ‘삼봉도’(Sambong-do), 프랑스와 영국 함대가 독도를 처음 발견한 자신들의 선박명칭을 차용하여 명명한 ‘리앙꾸르 암’(Liancourt Rocks)과 ‘호넷 암’(Hornet Islands), 일본이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 부르고 있는 ‘다케시마’(Take-shima) 등이 이형 접근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독도의 지명을 ‘Tok Island (Korea)’와 같이 한국으로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독도의 지명을 ‘Tok to (Corée S. ; îles)’와 같이 한국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일부 레코드의 경우 ‘Liancourt, Rochers du (Mer du Japon, îles)’와 같이 표시한 것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독도를 ‘Tokto’와 같이 표기하고 있으며, 지리 한정어로 일본과 한국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국가도서관 OPAC을 검색하면 표제 키워드 Dokdo, Tokdo, Takeshima, 독도 등으로 11건이 검색되지만 이들 레코드의 주제명은 대부분 ‘역사-한국’과 ‘역사-

25)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Korea*, “독도”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도” <<http://encykorea.aks.ac.kr/>> [인용 2013. 4. 20].

<표 3> '독도' 관련 주제명 표기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미 국	·Tok Island (Korea)	·Dogdo Island (Korea) ·Dok-do (Korea) ·Dokdo (Korea) ·Hornet Islands (Korea) ·Kaji-do (Korea) ·Kaji Island (Korea) ·Kajido (Korea) ·Liancourt Rocks (Korea) ·Sambong-do (Korea)	·Sambong Island (Korea) ·Sambongdo (Korea) ·Take-shima (Korea) ·Tok-do (Korea) ·Tok Islands (Korea) ·Tok-to (Korea) ·Tokdo Islands (Korea) ·Tokto (Korea)	·Korea (한국)
프랑스	·Tok to (Corée S. ; îles)	·Dok-do (Corée S. ; îles) ·Dokdo (Corée S. ; îles) ·Hornet Islands (Corée S.) ·Li añ k'u lü (Corée S. ; îles) ·Liancourt, Rochers (Corée S.) ·Liancourt Rocks (Corée S. ; îles) ·Take-shima (Corée S. ; îles) ·Tok-do (Corée S. ; îles) ·Tok Island (Corée S.) ·Tok to Li añ k'u lü (Corée S. ; îles) ·Tokto (Corée S. ; îles)		·Corée S. (남한)
독 일	·Tokto	·Takeshima <Shimane, Insel> (Knaurs WA/Reg., Getty Thes. Geo) ·Take-shima <Shimane, Insel> (Schreibung in Knaurs WA) ·Takeschima <Shimane, Insel> (Schreibung in B 1986, Atlas) ·Tok-to (Abweichende Umschrift)	·Kaji-do ·Kaji Island ·Kajido ·Sambong-do ·Sambong Island ·Sambongdo ·Tokdo Isla	·Südkorea (XB-KR) (남한) ·Japan (XB-JP) (일본)
스페인	·Dogo (Isla)	·Dokdo (Isla) ·Tok (Isla)		없음
러시아	·Лянкур, остр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окдо, остров	·Dokdo (표제 키워드)		·Korea (한국)
중 국	없음	·Tok Island (Korea) (영어자료: 주제명) ·竹島 (일본어자료: 주제명) ·독도 (한글자료: 표제 키워드)		없음
일 본	·竹島 (タケシマ)	없음		·일본의 행정구역 '鹿児島県三島村'
	·竹島問題 (タケシマモンダイ)	·独島問題 (トクトモンダイ) ·独島問題 (ドクトウモンダイ)		

일본'과 같은 일반주제명이거나 주제명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주제명 “Лианкур, остро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리양쿠르, 섬(한국)]와 “Корея--Докдо, остров”[한국-독도섬]으로도 각각 1건씩 검색되며, 여기에는 지리 한정어가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다. 스페인의 경우 독도를 'Dogo (Isla)'와 같이 표기하고 있으며, 지리 한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 국가도서관 OPAC를 검색하면 中文及特藏文(중국 및 티벳문헌)에서는 독도 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으며, 外文文獻數據(외국문헌)에서는 주제명을 영어자료는 'Tok Island (Korea)', 일본어자료는 '竹島'로 표기하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자료는 키워드 '독도'는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도관련 주제명으로 '竹島(タケシマ)'와 '竹島問題(タケシマモンダイ)'가 있으며, '竹島問題'의 이형 접근점으로 '獨島問題'를 표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표 3>과 같이 'Tok to (Corée S. ; îles)'로 주제명을 표기하면서 다양한 이형 접근점과 함께 “... 면적 302 km2의 바위섬들로 이루어진 화산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이라는 설명어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동해

동해(東海)는 아시아 대륙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이며, 태평양의 서쪽 연해로 한국,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섬, 일본 열도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기원전 37년에 해당하는 고구려 동명왕에 대한 기술에서 처음 보이며, 광개토태왕릉비에도 동해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인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동해를 조선해(朝鮮海) 또는 창해(蒼海)라고도 하였다.²⁷⁾

일본에서도 19세기까지는 일본서해와 타라해, 그리고 조선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일본해라는 명칭은 마테오리치가 1602년에 제작한 세계지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므로 동해보다 1600여 년이나 뒤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제강점기인 1929년 IHO(국제수로기구)에서 발간한 Limits of Oceans and Seas(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에는 日本海(Japan Sea)라는 이름만으로 표기되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 일본해(Sea of Japan)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²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해'(東海, East Sea), 북한에서는 '조선동해'(朝鮮東海, East Sea of Korea), 일본에서는 '니혼카이'(日本海, にほんかい), 러시아에서는 '야폰스코예 모레'(Японское море, 일본해)로 부르고 있다.

27) Encyclopaedia Britannica, *op. cit.*, “동해”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28) 두피디아, “동해” <<http://www.doopedia.co.kr/>> [인용 2013. 4. 20].

〈표 4〉 ‘동해’ 관련 주제명 표기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미 국	·Japan, Sea of	·East Sea (Korea and Japan) ·Aponskoe More ·Japan Sea ·Korea, Sea of ·Nihon-kai ·Nippon-kai ·Sea of Japan ·Sea of Korea ·Tong-hae ·Yaponskoye More	·BT Seas
프랑스	·Japon, Mer du	·Donghae ·Est, Mer de l' ·Aponskoe More ·Nihon-kai ·Nippon-kai ·Tong-hae	·BT Pacifique (océan)
독 일	·Japanisches Meer	·Japansee (Vorlage) ·Ostmeer ·Tonghae (Korean. Name) ·Donghae	·Pazifischer Ozean (XM)
스페인	·Mar del Japón	·Japón (Mar)	없음
러시아	·Японское море	없음	없음
중 국	·日本海 (ri ben hai)	·Sea of Japan	·北太平洋(P722)의 하위세목인 P722.3에 분류되어 있음
일 본	·日本海 (ニホンカイ)	없음	없음

한편 ‘동해’ 관련 주제명은 〈표 4〉에서와 같이 7개국 모두 검색되며, 표제에 ‘East Sea’라는 의미의 키워드가 나타나 있어도 주제명은 모두 ‘일본해’를 의미하는 ‘Japan, Sea of’, ‘Japon, Mer du’, ‘Japanisches Meer’, ‘Mar del Japón’, ‘Японское море’, ‘日本海 (ri ben hai)’, ‘本海 (ニホンカイ)’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이형 접근점으로 ‘Tong-hae’(동해)와 ‘Korea, Sea of’(한국해) 등을 표기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Japon, Mer du’로 주제명을 표기하면서 다양한 이형 접근점과 함께 “...일본해는 한국에서 동해라고 함”이라는 설명어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 황해

황해(黃海)는 한반도 서쪽에 있는 바다(西海)이며, 황허강(黃河)에 의해 운반된 중국 내륙지방의 황토 때문에 바닷물이 항상 누렇게 흐려 있어서 황해라고 부른다. 국제 수문기구에 의하면 동중국해와의 경계는 제주도과 양쯔강(揚子江) 하구를 연결하는 선으로 보고, 북쪽은 랴오둥만(遼東灣)과 산둥반도(山東半島)를 잇는 선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보하이 만(渤海灣)

까지를 서해의 범위로 본다.²⁹⁾

한편 ‘황해’ 관련 주제명은 <표 5>에서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경우 ‘黃海’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경우 모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Yellow Sea’, ‘Mer jaune’, ‘Желтое море’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독일에서는 표제 키워드 ‘Yellow Sea’와 ‘Gelbe Meer’로 레코드가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는 ‘황해’ 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표 5> ‘황해’ 관련 주제명 표기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미 국	·Yellow Sea	·Huang Hai ·Hwang-hae ·Kwang Sea	·BT Seas
프랑스	·Mer jaune	·Houang-Hai (mer) ·Huañ hä (mer) ·Huang Hai (mer) ·Huanghai (mer) ·Hwang-hae (mer) ·Hwanghai (mer) ·Jaune, Mer	·BT Pacifique (océan ; ouest)
독 일	없음	·Gelbe Meer (표제 키워드) ·Yellow Sea (표제 키워드)	없음
스페인	·레코드 없음		없음
러시아	·Желтое море	없음	없음
중 국	·黃海 (huang hai)	·Huang hai	·北太平洋(P722)의 하위세목인 P722.5에 분류되어 있음
일 본	·黃海 (コウカイ)	없음	없음

라. 압록강

압록강(鴨綠江)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면서 서해로 흘러드는 강이며, 압록강의 명칭은 『신당서(新唐書)』의 ‘고구려전(高句麗傳)’에 “물빛이 오리 머리의 색과 같아 압록수라 불린다”라고 기록된 데서 비롯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압록수(鴨渌水)로, 광개토왕릉비에는 아리수(阿利水)로, 『당서(唐書)』에는 염난수(鹽難水)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대동여지도에는 대총강(大攄江)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야루(鴨綠)로 불리고 있다.³⁰⁾

한편 ‘압록강’ 관련 주제명은 <표 6>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식 발음인 ‘Yalu’ 또는 ‘Yalu River’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압록강의 중국식 발음인 ‘Yalu River’로 표기하고, 이

29) Encyclopaedia Britannica, *op. cit.*, “서해”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30) *Ibid.*, “압록강”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형 접근점으로 한국식 발음인 ‘Amnok-kang’을 표기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한정어로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鴨綠江’(ya lu jiang)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독일, 일본, 러시아에서는 표제 키워드 ‘Yalu’ 또는 ‘Ялу’(압록강)로 레코드가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압록강’ 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표 6〉 ‘압록강’ 관련 주제명 표기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미 국	·Yalu River (China and Korea)	·Amnok-kang (China and Korea)	·China and Korea
프랑스	·레코드 없음		
독 일	없음	·Yalu (표제 키워드)	없음
스페인	없음	·Yalu (표제 키워드)	없음
러시아	없음	·Ялу (표제 키워드) ·Yalu (표제 키워드)	없음
중 국	·鴨綠江 (ya lu jiang)	·Yalu River	·中国自然地理(P942)에 분류하고 있음
일 본	없음	·Yalu (표제 키워드) ·鴨綠江 (표제 키워드) ·압록강 (표제 키워드)	없음

마. 두만강

두만강(豆滿江)은 한반도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명칭은 고려강(高麗江)을 비롯해서 도문강(圖門江 또는 徒們江), 토문강(土們江), 통문강(統們江) 등으로 표기된 문헌도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중국측의 문헌이고, 한국의 문헌에는 거의 두만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두만’이란 말은 중국 원나라의 지방관직 만호(萬戶)를 여진어 발음으로 ‘두맨’이라 하며, 이를 한자어로 표기하면 ‘두만’이 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³¹⁾

한편 ‘두만강’ 관련 주제명은 〈표 7〉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식 발음인 ‘Tumen’ 또는 ‘Tumen River’로 표기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Tumen River’와 ‘Tumen’으로 표기하면서 이형 접근점으로 두만강의 한국식 발음인 ‘Tuman-gang’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의 지리 한정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북한과 중국 2개국을 지명으로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圖們江’(tu men jiang)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표제 키워드로 ‘豆滿江’, ‘Tumen’, ‘Туманган’(두만)이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두만강’ 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31) *Ibid.*, “두만강”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표 7〉 ‘두만강’ 관련 주제명 표기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미 국	·Tumen River	·Tomon-ko ·T'u-men chiang ·Tuman-gang ·Tumyntszyan	·BT Rivers-China Rivers-Korea(North) Rivers-Russia(Federation)
프랑스	·레코드 없음		
독 일	·Tumen	·Tumangang ·Tumen Jiang ·Tumenkiang ·T'u-men-chiang ·Tumenjiang	·Nordkorea (XB-KP) ·China (XB-CN)
스페인	·레코드 없음		
러시아	없음	·Туманган (표제 키워드) ·Tumen (표제 키워드) ·Tumen River (표제 키워드)	없음
중 국	·图们江 (tu men jiang)	·Tumen River	·中国自然地理(P942)에 분류하고 있음
일 본	없음	·豆満江 (표제 키워드) ·두만강 (표제 키워드) ·Tumen (표제 키워드)	없음

바. 백두산

백두산은 북한의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지린성(吉林省)에 걸쳐있는 산이며, 높이 2,750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화산폭발에 의해서 덮인 부석(경석이라고도 함)이 회백색을 나타내며, 꼭대기는 1년 중 8개월 이상 눈에 덮여서 희게 보이기 때문에 백두산이라 부른다. 중국에서는 창바이산(長白山)이라고 한다.³²⁾

한편 ‘백두산’ 관련 주제명은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백두산의 한글발음을 번자하여 ‘Paektu’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白頭山’으로 주제명을 표기하고 있지만 국가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 중국어 자료에 ‘白頭山’이라는 주제명은 없으며, ‘長白山’(장백산)으로 주제명을 표기하면서 중국자연지리(P942)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주제명 ‘長白山’에는 백두산과 관련된 용어나 설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어자료에는 ‘白頭山’으로 주제명이 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표제 키워드로 ‘Пякту Гора’(백두산)가 검색되지만 주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스페인에서는 ‘백두산’ 관련 레코드가 검색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백두산과 장백산을 구분하여 ‘Paektu Mountain (Korea)’와 ‘Changbai Mountains (China and Korea)’로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다. 즉, 백두산은 한국의 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장백산은 중국과 한국의 산으로 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표 8〉에서와 같이 백두산의 전거형 접근

32) Ibid., “백두산”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점을 'Paektusan'을 표시하면서 이형 접근점으로 'Changbai Shan'(장백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백두산과 장백산을 같은 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프랑스에서는 북한을 지리 한정어로 포함하여 'Paektu (Corée N. ; mont)'와 같이 표시하고 있으며, 장백산은 검색되지 않는다.

〈표 8〉 '백두산' 관련 주제명 표기

구분 국가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지명표시
미 국	·Paektu Mountain (Korea)	·Hakutosan (Korea) ·Pai'tou Mounatin (Korea)	·Korea
	·Changbai Mountains (China and Korea)	·Ch'ang-pai Mountains (China and Korea) ·Ch'ang-pai Shan (China and Korea) ·Changbaek-sanjulgi (China and Korea) ·Changbaek-sanmaek (China and Korea) ·Changbai Shan (China and Korea) ·Changpai Mountains (China and Korea)	·China and Korea
프랑스	·Paektu (Corée N. ; mont)	·Päk tu (Corée N ; mont) ·Baiktou (Corée N ; mont)	·Corée N. ; mont
독 일	·Paektusan	·Pai-t'ou-shan ·Baitoushan ·Paitow Shan ·Changbai Shan ·Pektusan (Vorlage)	·China (XB-CN) ·Südkorea (XB-KR)
스페인	·레코드 없음		
러시아		·Пэкту Гора (표제 키워드)	
중 국	·长白山 (chang bai shan) (중국어자료)	·Changbai Mountains	·中国自然地理(P942)에 분류하고 있음
	없음	·백두산 (한국어자료: 표제 키워드) ·白頭山 (일본어자료: 주제명)	없음
일 본	·白頭山 (ハクトウサン)	없음	없음

3.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특성 비교 분석

앞서 분석한 주요 국가도서관의 전거레코드에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 표기 현황은 〈표 3〉~〈표 8〉과 같으며, 주제명의 표기와 지리 한정어를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 표기특성

국경관련 주제명의 경우 해당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방법이 다르다. 특히 한중일의 경우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표기하더라도 읽는 방법이 다르므로 다르게 표기될 수밖에 없다. 주제명표기의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한글의 로마자표기에 대한 원칙이 바뀔 때 마다 표기방법이 달라졌다. 현재 한글의 로마자표기는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2000. 7. 7.)를 따르고 있으며, 이 원칙에 따라 '독도',

‘동해’, ‘황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Dokdo’, ‘Donghae’, ‘Hwanghae’, ‘Amnokgang’, ‘Dumangang’, ‘Baekdusan’과 같다. 이는 앞서 분석한 주요 국가의 주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표기방법이 현행 한글의 로마자표기와는 거의 다르게 되어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한글 로마자표기는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쿤-라이 샤워방식의 표기법에 따라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주로 미국의 LCSH의 주제명을 차용하고 있으며, 전거레코드를 살펴보면 출처가 LCSH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LCSH의 전거레코드와 거의 유사하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서양서에 대한 목록레코드를 검색해보면 LCSH의 주제명을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미국의 LCSH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제명, 특히 이형 접근점에 중국어 또는 일본어 접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일본어 접미사: -shima(섬), -to(島), -san(산), -ko(강), -kai(海, 바다) 등사
- 중국어 접미사: -hai(海), -jiang(江), -chiang(江), -shan(山) 등

넷째, 주제명의 표기기반이 일본어 지명, 중국어 지명, 한국어 지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중국어 표기: Tumen(圖們), Yalu(鴨綠), Changbai Shan(長白山) 등
- 일본어 표기: Tomon-ko(圖門江), Nippon-kai(日本海), Take-shima(竹島), Hakutosan(白頭山) 등.

· 한국어 표기: Tok to(독도), Donghae(동해), Amnok-kang(압록강), Paektusan(백두산) 등 다섯째, 한글 로마자 표기의 혼란으로 인해 다양한 이형 접근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도’ 관련 주제명 표기에 이러한 사례가 많다.

- Dogdo, Dok-do, Dokdo, Tok-do, Tok-to, Tokdo, Tokto 등

여섯째, 스페인의 경우 ‘독도’에 대해 전거형 접근점으로 ‘Dogo (Isla)’로 표기하고 이형 접근점으로 ‘Dokdo (Isla)’와 ‘Tok (Isla)’을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거형의 ‘Dogo’는 ‘독도’에 대한 한글 발음을 스페인어로 잘못 번자하였거나 ‘독도’의 의미 표현과는 거의 무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나. 지리 한정어의 특성

<표 3>~<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도’, ‘동해’, ‘황해’,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의 지리 한정어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독도의 경우, 미국과 프랑스는 한국으로, 독일은 한국과 일본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부분 지리 한정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부 레코드에는 한국으로 지리 한정어를 표기한 것도 있다. 스페인은 지리 한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중국은 독도 관련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리 한정어를 알 수 없다.

동해와 황해의 경우 모두 특정 국가의 지리 한정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상위어가 대부분 태평양 또는 해양으로 되어 있다.

압록강의 경우 미국은 지리 한정어를 ‘중국과 한국’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리 한정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국도서관분류법의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중국의 자연지리에 분류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대부분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두만강의 경우 독일은 지리 한정어를 북한과 중국을 모두 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리 한정어는 없지만 상위어로 중국, 북한, 러시아를 모두 표시하고 하고 있다. 중국은 압록강과 마찬가지로 지리 한정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국도서관분류법의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중국의 자연지리에 분류하고 있다.

백두산의 경우 미국은 백두산과 장백산을 구분하여 주제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백두산은 지리 한정어를 한국으로 표시하고, 장백산은 중국과 한국으로 표시하고 있다. 독일은 중국과 북한, 프랑스는 북한을 지리 한정어로 표시하고 있고, 일본은 지리 한정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長白山’(장백산)으로 주제명을 표기하면서 중국자연지리(P942)에 분류하고 있고, 백두산과 관련된 용어나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IV. 결 론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에 나타난 한국의 대표적인 국경관련 주제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국경관련 문헌이 소장되어 서지 레코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국경관련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스페인의 경우 ‘황해’, ‘두만강’, ‘백두산’에 관한 서지 레코드조차도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둘째, 국경관련 주제명은 지리 한정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지리 한정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며, 독일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명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셋째, ‘동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황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황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지리 한정어는 ‘태평양’이나 ‘해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넷째,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우 대부분 중국식 발음을 번자하여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의 경우 대부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백두산’과 ‘장백산’을 다른 산으로 간주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장백산’을 ‘백두산’의 이형 접근점

으로 표기하고 있어 서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형 접근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글의 로마자 표기의 원칙 변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으므로 우리의 로마자 표기 정책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경과 관련된 지명 표기는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에 대한 표기는 전적으로 해당 국가도서관의 주제명 표기방식과 관련 있지만 일부 불합리한 한국관련 주제명이 올바르게 표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주요 6개국 국립도서관 한국관련 주제어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0.
- 김영귀, “LC Subject Headings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의 선정 및 표기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인문사회과학대학편), 제44집(1997), pp.237-272.
- 김정현,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한·중·일 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10), pp.147-169.
- 김정현, “LCSH의 한국 국경관련 주제명의 변천고.” 국회도서관보, 제47권, 제11호(2010), pp.56-63.
- 김정현,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난 한국관련 주제명 비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2011), pp.141-162.
- 김정현, 문지현, “LCSH 한국관련 주제명표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3호(2009), pp.49-68.
- 남태우 외, “자료조직 측면에서 독도표기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집, 제4호(2008), pp.291-310.
- 문지현, “『中國分類主題詞表』와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에 나타난 한국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pp.247-267.
- 문지현, 김정현, “『國立國會圖書館件名標目表』의 한·중 관련 주제명표목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pp.247-267.
- 문지현, 김정현, “『中國分類主題詞表』의 한·일 관련 주제명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11), pp.331-350.
- 오경목, “한글 로마자 표기에 대한 국제기관의 규정과 표기의 실제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24, 제4호(2007), pp.33-51.
- 윤정옥,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LCSH)의 한국과 일본 관련 주제표목의 비교 연구.” 도서

- 관, 제56권 제1호(2001), pp.30-55.
- 정연경. “정보의 접근점으로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4권, 제2호(2010), pp.51-72.
- 최달현, 이창수. 정보자료의 분류와 주제명, 개정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인용 2013. 4. 2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인용 2013. 4. 20].
- 國立國會圖書館. *Web NDL Authorities: 國立國會圖書館典據データ檢索·提供サービス*, <<http://id.ndl.go.jp/auth/ndla>> [cited 2013. 4. 20].
- 中國國家圖書館. 中文及特藏文: 瀏覽字順主題詞索 <<http://opac.nlc.gov.cn/F?RN=647571808>> [cited 2013. 4. 20].
- 中國分類主題詞表Web版. <<http://cct.nlc.gov.cn/login.aspx>> [cited 2013. 4. 20].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RAMEAU: Répertoire d'autorité-matière encyclopédique et alphabétique unifié*. <<http://rameau.bnf.fr/utilisation/liste.htm>> [cited 2013. 4. 20].
-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Manual de Autoridades, 2010*, <<http://www.bne.es/>> [cited 2013. 4. 20].
-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úsqueda de Autoridades*, <<http://catalogo.bne.es/uhtbin/authoritybrowse.cgi>> [cited 2013. 4. 20].
- Deutsche Nationalbibliothek. *Katalog der Deutschen Nationalbibliothek*, <<https://portal.dnb.de/>> [cited 2013. 4. 20].
-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Korea*. <<http://preview.britannica.co.kr/>> [cited 2013. 4. 20].
- Chan, Lois Mai.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onn. : Libraries Unlimited, 2005.
-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RDA : 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Chicago : ALA, 2010.
- Kim, Joy.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 Related to Korea and East Asia in genera*. [Unknown]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1989.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Authorities*, <<http://authorities.loc.gov/>> [cited 2013. 4. 20].
-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34th ed.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2012.
- Library of Congress. *Subject Cataloging Manual: Subject Headings*. 4 vols. Washington, D.C. :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Library of Congress, 1996.

- Zhlobinskaya, Olga. *UNIMARC in Russia: RUSMARC as national implementation of UNIMARC* (3rd UNIMARC Users Group Meeting, Lyon, France, March 31, 2010) <cfu.enssib.fr/documents/publications/162314.ppt> [cited 2013. 4. 20].
- 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http://rsl.ru/index.php?lang=en>> [cited 2013. 4. 2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e, Dal Hwun & Chang-Soo Lee. *Library Classification and Subject Heading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 Chung, Yeon Kyoung. "A Study o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as an Information Access Poi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4, No.2(2010), pp.51-72.
- Kim, Jeong-Hyen.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National Libraries OPAC of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8, No.3(2011), pp.141-162.
- Kim, Jeong-Hye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n Border in LCSH,"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Vol.47, No.11(2010), pp.56-63.
- Kim, Jeong-Hyen, Ji-Hyun Mo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opical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3(2009), pp.49-68.
- Kim, Jeong-Hyen.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C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1, No.2(2010), pp.147-169.
- Kim, Young-Kuy. "The Study of Selection and Scription of Korean-Related Subject Headings in th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usan women's university Journal*, Vol.44(1997), pp.237-272.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ubject Headings on Korea*. Seoul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0.
- Moon, Ji-Hyun, Jeong-Hyen Kim.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China in the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Society*, Vol.42, No.1(2011), pp.247-267.
- Moon, Ji-Hyun, Jeong-Hyen Kim.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Chinese Classified Thesaurus*," *Journal of Korea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Vol.42, No.3(2011), pp.331-350
- Moon, Ji-Hyun.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in the CCT and NDLSH,"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3(2012), pp.121-141.
- Nam, Tae Woo etc. "A Study of the Dokdo Notation Problem in Terms of Library Materials Organ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2, No.4(2008), pp.291-310.
- Oh, Kyung-Mook. "A Study on Romanization Rules and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Korean language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4, No.4(2007), pp.33-51.
- Yoon, Cheong-ok. "The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Headings Related to Korea and Japan in the LCSH," *Doseogan*, Vol.56, No.1(2001), pp.30-55.